



한양화학(주) 여천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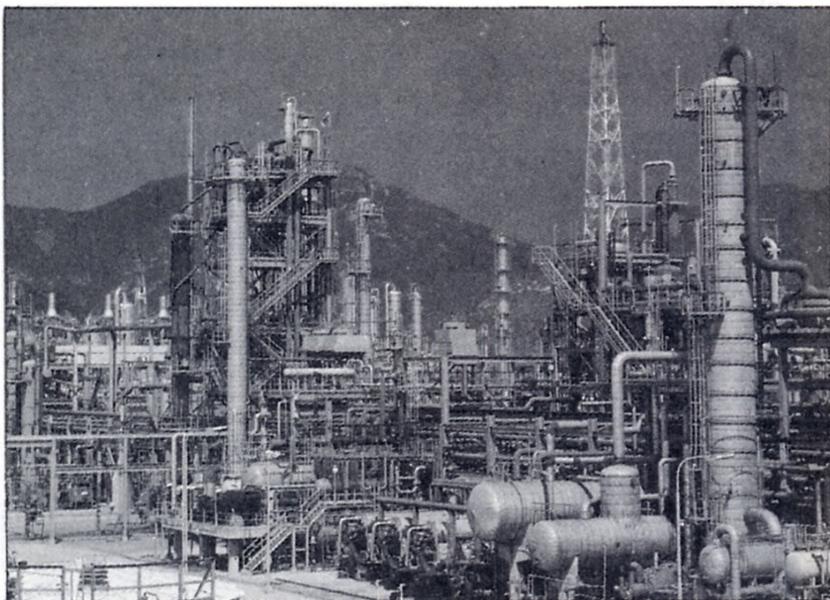
염소유도체공장 건설 추진

석유화학 제품의 종합 MAKER 라고 할 수 있는 한양화학(주)는 1988년 5월 1일 한국프라스틱공업(주)를 합병함으로써 석유화학의 원료에서 최종 제품 생산까지 일관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어 경쟁력이 대폭 강화되게 되었다.

동사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하여 석유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설비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석유화학의 기초원료인 납사 분해공장의 신설과 CHROLO-ALKALY 공장, VCM 공장의 증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8만톤 규모의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 (L-LDPE) 공장을 19만톤 규모로 확장 증설 중에 있다.

또한 국내 최대의 정밀화학 기초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동사는 고 부가가치 정밀화학제품인 염소



유도체 공장의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20여년전 국내 최초의 석유화학 사업에 참가하여 해외 선진국 기술을 연수한 고급인력과 그 동안 축적된 기술로 첨단 기술을 요하는 석유화학 공장의 ENGINEERING 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설비의 안전 및 손실방지 수준은 절대 안전을 추구하기 위한 FAIL-SAFE 원칙과 주로 보험회사에서 검토하는 공정의 위험도 사정을 위한 화재 및 폭발지수 산정과 이에 따른 최대 피해예상액을 추정하여 최악의 경우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적정 수준의 방재시설을 평가하는 선진공업국의 최첨단 기술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화재 및 폭발 위험이 많은 석유화학 공장의 안전 수준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동방전자산업(주)

생산성 대상(종합부문) 수상

동방전자산업주식회사(대표: 최만형)는 1988년 8월 11일 한국생산성 본부가 주관하는 88년도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부문 상공부장관상을 받았다.

1966년 창업 이래로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복지국가건설의 시대적 흐름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국가산업시설을 화재로부터 예방 보호하고자 하는 기업이념으로 20여년간 자동화재경보기류 생산에 주력해 온 동방전자산업은 다변화하는 국·내외의 정세와 생산코스트의 앙등에 대처하여 자동화

